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 한교법, “정부 개헌안, 위험한 결과 초래 우려”

다양성이라는 표현은 삭제해야,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될 수 있어

한국교회법학회(한교법)는 19일 서울 서초동 사랑의교회에서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이 성적 지향과 성적체성의 평등대우를 요구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 학회 창립 5주년 기념 ‘개헌논의와 한국교회’라는 주제의 세미나에서 음선필 교수(홍익대 법대 학장)는 ‘기독교 시각에서 본 헌법개정안의 쟁점’이라는 제목으로 이같이 밝혔다.

음 교수는 국가는 문화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증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개헌안 제9조와 관련, 다양성이라는 표현은 삭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양한 문화를 강조했다던 유럽의 경우, 결과적으로 반유럽 정서의 이슬람 문화의 득세만을 가져왔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최근 지자체의 조례에서 ‘성소수자’의 문화적 표현을 존중할 것을 요구하는 현실을 볼 때 문화 다양성은 개념상 다의적이고 애매모호해 오·남용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 같은 논란의 요소가 있는 개념을 최고 규범인 헌법에 명문으로 두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차별금지법과 관련, 음 교수는 “입법이 아닌 해석으로 성적 지향 등을 차별금지 사유로 파악하게 된다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했다. 왜냐하면 이번 개헌안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이 의무사항이 되기 때문이다.

군인권 문제와 관련, 국방부의 의무를 이행하는 국민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개헌안은 동성애가 현행 군형법의 처벌 대상인데 이에 대한 폐지론이 강하게 주장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GNPNEWS]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시편 99:4) **기도** | 하나님, 이 땅을 공변과 진리로 통치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정의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자신들의 이념과 사상이 아닌 국민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백성을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복음기도 포토에세이

### 내가 본을 보였노라



- 아프가니스탄의 한 가정집에서

### 아프가니스탄의

현자인 집에 초대받아 가면 신기한 경험을 할 수 있다. 식사시간이 되면 어린아이들은 물과 대야와 수건을 가지고 어른들 앞에 공손히 무릎을 꿇고 앉아 식사 전에 손을 닦을 수 있도록 물을 붓고 수건도 챙겨 드리면서 섬긴다. 이런 섬김은 생경스럽지만 섬김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한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섬김의 본

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하늘에게도 찬양을 받는 분이셨지만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제자들이 자신을 배신할 것을 아시면서도 그들의 발을 씻기시며 섬김의 본을 보이셨다.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 서로의 발을 씻어주며 예수님의 섬김을 함께 실천해 보았다. 그러면서 더 생각하게 된다. 얼마나 예수님께

를 섬기고 있을까. 내 삶 속에서 얼마나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을까.

사랑을 나누고 섬기는 진정한 예수님의 모습이 하늘나라로 부르심을 받는 그 날까지 삶 속에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드린다. [GNPNEWS]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요한복음 13:15)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57)

### 나쁜 짓을 하고 용서 받은 적이 있나요?

누구나 기쁜 소식 즉, 복음을 듣기 원한다. 복음을 갈망하는 영혼들을 위해 다양한 믿음의 고백들을 겨자씨선교회에서 제작한 전도지에서 발췌, 소개한다. <편집자>

시험 성적표를 받으면 대부분 걱정이 앞섭니다. 성적이 낮으면 먼저 혼이 난 후, 부모님 도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적표를 떨리는 마음으로 아버지께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시선과 관심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야구 중계였습니다. 프로야구 광이신 아버지는 시선을 TV에 고정한 채 “몇 등이야?”하고 물었고, 아들은 곧 들려올 아버지의 고함을 예상

하며 기어 들어가는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시며 합성을 질렀습니다. 맞습니다. 고함이 아닌 함성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응원하는 팀이 역전 홈런으로 게임에서 승리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끌어안고 펠쩍펠쩍 뛰었습니다. 한참 뛰다가 그제서야 정신 차린 아버지는 “열심히 해서 다음에 잘하면 되잖아. 야! 오늘 기분인데 치킨이나 시켜 먹을까?”라며 아들의 등을 두드려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관대함을 위해 아들이 애쓴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혼나긴 커녕, 예상을 뒤엎고 오히

려 격려와 치킨을 즐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당신은 죄로 얼룩진 성적표를 들고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이룩한 승리로 인해 당신이 용서받는 것입니다. 그 용서는 당신에게 영원히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천국의 삶을 지금부터 누리게 만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죄로 얼룩진 삶의 성적표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심판 대신 용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피투성이가 되며 생명을 내주고 싸워 승리하신 것에 감사



일러스트=김경선

하십시오. 이제 당신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지금부터 누리십시오. 용서의 대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그래서 선물입니다. 당신은 그저 믿고 손 내밀어 받기만 하면 됩니다. [GNPNEWS]

**\* 신앙상담 316전화**  
이 글을 읽고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하세요. 복음의 소리 '316전화' ☎ 1670-3160

### INSIDE

뉴스 | 아시아

충북 증평에서 '인권조례' 폐지...  
충남 이어 두 번째 2면

기획 |

“보코하람 생존 여성,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다” 3면

인터뷰 | 김승년 선교사

“사람의 변화는 책이나 훈련이 아니라 오직 복음이에요” 5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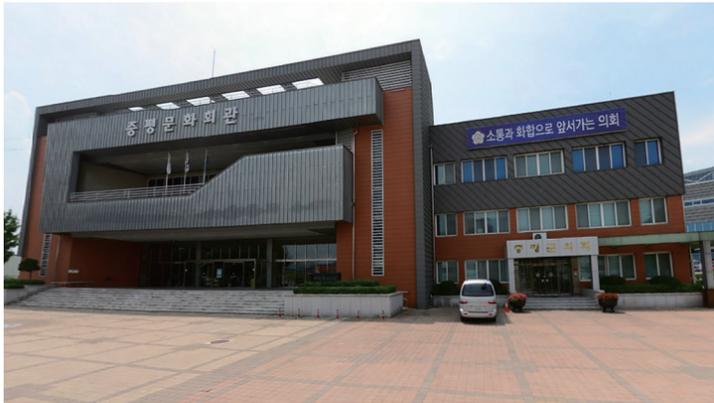
칼럼 |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위기의 때,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라! 6면

복음과기도미디어는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완성을 소망하며 미디어로 열방을 섬기는 초교파 선교단체입니다.

아시아

# 충북 증평에서 '인권조례' 폐지... 충남 이어 두 번째



▶ 증평군의회 청사 전경

충청남도에 이어 충청북도 증평군에서도 '인권조례'가 폐지됐다. 충북 증평군의회는 20일 본회의에서 지난해 10월 10일 가결된 '증평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의 폐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가 가결된 지 약 6개월 만이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그동안 각 지자체의 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옹호·조장할 수 있다고 염려해 온

이들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보였다. 이번 조례 폐지는 증평군 한 교회 목회자가 '인권보장과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 청구를 계기로 본격화됐다. 이 목회자는 조례 폐지 청구서에서 "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옹호하고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등 소수의 인권보장을 위해 다수의 인권을 역차별하며 인간의 윤리 도덕을 파괴하는 독소조항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이번 증평군 인권조례 폐지 결정 및 폐지 논의 과정을 보도한 국내 언론은 대체로 비판적 관점으로 보도해 국내 언론매체의 관점이 동성애에 대해 우호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말 이 사실을 보도한 한국일보 '증평군의회가 스스로 만든 인권조례 폐지 나서 빈축'을 사고 있다고 전했으며, 충북지역 언론매체인 중앙일보, 충북일보, 충북뉴스, 충북넷, 충북메이커스, 충청타임스 등 대부분의 언론사들이 조례폐지를 규탄하거나 비판하는 단체 등의 입장을 전했다. 한편 충남도의회는 이달 3일 재의 끝에 '충남도민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를 가결했다. 그러나 남궁영 충청남도지사 권한대행이 현재 폐지안 가결의 무효확인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다. [GNPNEWS]

중동

# 터키서 20년 사역한 美 선교사에 징역 35년 구형



▶ 앤드류 브런슨 선교사(출처: latimes.com 캡처)

터키에서 20년 동안 사역해 온 미국의 앤드류 브런슨 선교사가 터키 검찰로부터 징역 35년을 구형 받았다고 터키 일간지 데일리 사바(Daily Sabah)가 보도했다. 브런슨 선교사는 반정부 활동가인 페툴라 굴렌과 쿠르드노동당(PPK)을 지지하고 정치적·군사적

목적으로 분류된 국가 정보를 취득한 혐의로 고소를 당해 2016년 10월 체포됐다. 터키 정부는 쿠르드노동당과 페툴라 굴렌을 반정부 테러리스트들로 간주하고 있다. 하지만 브런슨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오히려 굴렌의 범죄인 인도를 위해 미국 정부와 대화 중인 터키 정부에 자신이 협상 카드로 이용 중이라고 믿고 있다. 한편 브런슨 선교사의 딸 재클린은 최근 열린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아버지의 석방을 호소하면서 "아버지를 상대로 한 모든 혐의들이 불합리하다는 사실을 안다. 아버지는 정부를 전복하려는 무장 테러리스트가 아니라 평화로운 목회자 이시다."라고 말했다. 또 "나는 터키에서 자랐으며, 우

리 가족들은 터키인들을 사랑하고 존중한다. 그리고 나의 아버지는 20년이 넘게 그들을 위해 봉사하는데 헌신하셨다."면서 작년 8월 면회에서 아버지로부터 전달받은 편지를 소개했다. 브런슨은 편지글에서 "난 무엇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기독교인 목사이기 때문에 수감된 것이다. 아내와 자녀들이 너무 그립다. 그러나 나보다 앞서갔던 수많은 이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고통을 받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전 세계의 모든 아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한다."라고 말했다. 미국에서는 50만 명이 브런슨 선교사의 석방을 청원한 상태며 중보기도를 이어가고 있다. [GNPNEWS]

아시아

# 한국순교자의소리, 조선어 오디오성경 녹음 배포

한국순교자의소리는 국제 성경녹음단체인 '믿음은 들음에서'(FCBH)와 함께 북한 방언으로 된 조선어 신약성경과 창세기를 오디오로 녹음한다. 녹음된 오디오 성경은 북한 주민들이 있는 어느 곳이든 배포되며 라디오로도 송출된다. 이 오디오 녹음에 사용된 성경은 평양식 공동번역으로 만들어진 조선어 스테디 성경이다. 이 번역판은 원래 북한 정부가 번역한 것이

지만, 성서 언어학자들은 이 번역본이 정치적 편견을 갖고 있지 않으며 이해하기 쉽고 정확한 번역이라고 평가하고 있다고 폴리 현숙 한국순교자의소리 대표는 말했다. 폴리 대표는 "지난 17년간의 사역을 통해, 북한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최선의 방법은 그들 자신의 방언으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된 성경을 제공하는 것입니다."라고 덧



▶ 조선어 스테디 성경(출처: 한국순교자의소리 캡처)

붙였다. 문의 ☎ 02-2065-0703 [GNPNEWS]

## 오늘의 열방 다이제스트 (4.9 ~ 4.19)

복음기도신문은 긴급한 열방의 상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열방의 교회, 다음세대, 창궐하는 죄, 이주민 문제, 영적 전쟁 등의 관점에서 전세계 언론과 통신원들을 통해 모아진 열방의 소식을 요약, 정리해서 제공합니다. <편집자>

### 결혼의 '몰락'... 프랑스 등 유럽 10개국 혼외출산이 절반 넘어

유럽에서 결혼 관계가 아닌 남녀 사이에서 태어나는 아이가 해마다 늘고 있으며 아이슬란드, 프랑스를 비롯해 유럽 내 10개국의 경우 혼외출산 신생아 수가 전체 신생아의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고 18일 유럽연합(EU) 공식 통계기구인 유로스타트(Eurostat)가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의 비밀이 담긴 결혼의 거룩함과 결혼을 통해서만 허락되는 출산의 의미를 복음으로 재조명시켜 주십시오. 유럽에 교회들이 십자가 앞에 다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질서 아래에 굳건히 세워지는 믿음의 가정을 일으켜 주시길 기도합니다.

### 헤이그, 도심에서 대마초 흡연 전면금지... 네덜란드 도시 중 처음

네덜란드 헤이그 도심에서 대마초 흡연이 전면적으로 금지된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대마초 흡연 금지는 헤이그가 처음이며 대마초를 판매해 온 커피숍과 노숙인 쉼터에는 이를 위반할 시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전단이 배포됐다.

주님, 사악한 것들을 경험해보고 싶은 악한 정욕을 멈추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음란과 쾌락의 허망함을 진리 안에서 깨닫는 은혜를 구합니다. 네덜란드 땅에 주님을 경외하는 증인들을 통해 십자가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참되고 영원한 행복을 들려주소서.

### 인도서 학교 버스 계곡 아래 추락... 어린이 21명 사망

인도 경찰은 9일(현지시간) 뉴 델리에서 500km 가량 떨어진 강그라 밸리에서 스쿨버스 한 대가 추락해 버스에 타고 있던 어린이가 최소 21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하나님, 각종 사건사고와 재난이 끊이지 않는 인도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을 운명에 맡기고 체념한 채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기쁜 소식, 복음으로 깨우쳐주시고 모든 상황에 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이름을 절망의 인도에 계시하옵소서. [GNPNEWS]

## 느헤미야52기도 참여교회 및 단체

2018년 4월 30일 ~ 5월 12일

- | 4월 30일~5월 5일  | 5월 7일~12일  |
|---|--|
| <b>4.30~5.5(매일 0시~24시)</b><br>▶경기 성남 / 선한목자교회 (손**)010-3913-2677<br><b>4.29(14시)~30(02시)</b><br>▶대전 서구 / 반석중앙교회 (임**)010-2276-8221<br><b>5.5(06시~12시)</b><br>▶서울 관악구 / 신림감리교회 (강**)010-5408-6348<br><b>4.30~5.1,3~4(매일10~12시)</b><br>▶경기 안산 / 안산순복음교회 (김**)010-8432-3698<br><b>4.30~5.1,3~4 (매일10:30분~11:30분)</b><br>▶경기 의정부 / 열방교회 (최**)010-5528-5087<br><b>5.1~4(매일10시~12시)</b><br>▶경기 시흥 / 은혜교회 (위**)010-4510-1070<br><b>5.3(10시~12시)</b><br>▶전남 여수 / 여수선민교회 (윤**)010-8482-8651<br><b>5.4(10시~14시)</b><br>▶경기 김포 / 김포전원교회 (강**)010-4128-0448<br><b>5.4(10시)~5(10시)</b><br>▶서울 광진 / 한국중앙교회 (황**)010-7766-3100 | <b>5.7~12(매일0시~24시)</b><br>▶광주 북구 / 십자가사랑교회 (김**)010-6280-4419<br>▶충남 서산 / 헤브론선교대학교 (강**)010-6368-1978<br><b>5.7(0시~24시)</b><br>▶울산 중구 / 울산태화교회 (박**)010-9326-7767<br><b>5.9(0시~24시)</b><br>▶경기 수원 / 진흥교회 (남**)010-8628-6879<br><b>5.7~8,10~11(매일10~12시)</b><br>▶경기 안산 / 안산순복음교회 (김**)010-8432-3698<br><b>5.7~8,10~11 (매일10:30분~11:30분)</b><br>▶경기 의정부 / 열방교회 (최**)010-5528-5087<br><b>5.8~11(매일10시~12시)</b><br>▶경기 시흥 / 은혜교회 (위**)010-4510-1070<br><b>5.10(10시~12시)</b><br>▶전남 여수 / 여수선민교회 (윤**)010-8482-8651<br><b>5.11(10시~14시)</b><br>▶경기 김포 / 김포전원교회 (강**)010-4128-0448<br><b>5.11(10시)~12(10시)</b><br>▶서울 광진 / 한국중앙교회 (황**)010-7766-3100 |

\* 느헤미야52기도에 함께 하기를 원하는 분은 사전에 연락하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52기도 문의 ☎ 010-5424-4641)

# 보코하람 생존 여성,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다

나이지리아 북동부 지역에서 이슬람 테러집단에 의해 자행되는 성범죄가 피해자와 주민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야기하고 있다.

사건은 수천 명의 여성들과 여자아이들이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 보코하람에게 납치당하면서부터 시작된다. 이들은 납치범들과 강제로 결혼을 하는가 하면 강간으로 임신하게 된다. 그중 극소수는 간신히 탈출하거나 구조돼,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거의 대부분 파괴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다.

하지만 서아프리카 보르노(Borno)주 남부에 위치한 그위자(Gwoza)에서 온 에스더 같은 여성에게는 박해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 고향으로 돌아간 그들은 '보코하람 여자들'로 치부하는 가족과 지역사회의 차별과 거절을 마주하게 된다. 또한 강간으로 태어난 그들의 자녀들 역시 거절, 버려짐, 그리고 폭력의 위협을 직면하게 된다.

에스더는 보코하람에게 1년 동안 포로로 잡혀 있었다. 감금되어 있는 동안 그녀가 얻게 된 것은 깊은 정서적 상처와 그녀가 레베카라 이름 지었으나, 가족과 마을의 다른 사람들에게 '보코'라고 불리는 아이였다.

## 보코하람에 납치된 에스더

17세의 에스더가 그녀의 인생이 통째로 뒤집히던 날, 그녀가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모습은 바다에 죽은 채로 땅바닥에 쓰러져있던 아버지였다. 10월의 그날이 오기 전, 에스더와 그녀의 아버지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주 단순한 삶을 살았다. 그녀는 열심히 학교에 다니고 병든 아버지를 돌봤다.

2015년 10월 이슬람 극단주의단체인 보코하람(Boko Haram: '서



▶ 에스더와 그의 딸 레베카(출처: 오픈도어 캡처)

녀와 마을의 몇몇 젊은 여성들을 삼비사 숲(보코하람이 납치한 수천 명의 사람들을 데려간 곳)에 있는 은신처로 데려갈 때, 그녀는 계속 뒤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시선은 아버지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에스더는 그날 아버지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른다. 그녀는 최악의 상황을 예상했다.

보코하람의 손에 붙잡힌 삶은 그녀가 떠올릴 수 있는 최악의 악몽이었다. 삼비사 숲에서 테러리스트들은 납치된 소녀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포기하라고 강요했다. 그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무슬림의 신 알라에게 충성을 맹세하도록 압박질렀다. 그들은 회유가 통하지 않을 때는 곧바로 폭력을 행사했다.

많은 소녀들이 저항하지 못하고 납치범들과 결혼했다. 일부는 버티기도 했다. 에스더도 극심한 압력과 맞서 싸웠다. 많은 사람들이 아름다운 에스더를 아내로 삼으려 했다.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에스더처럼(에 4:16) 그녀는 항복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마음속으

로 고개를 떨구고,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려 하며 잠시 침묵했다.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점점 저 자신이 싫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에게 매우 화가 났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난 주님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나를 결코 떠나지 않으며 나를 버리지 않겠다는 주님의 약속을 나 스스로 기억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에스더는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 채 임신을 하게 됐다. “나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이 아이를 사랑할 수 있을지 상상도 못했습니다.”

## 돌아온 고향에서도 이어지는 박해

2016년 11월, 나이지리아 군대에 의해 에스더와 포로로 납치된 다른 소녀들이 구출됐다. 에스더는 도움을 기대하며 임신 한 채 고향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마을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녀와 돌아온 여자들을 '보코하람 여자'라고 부르며, 포로였던 사람들을 거부하고 배척했다.

살라마투 우마도 그 꼬리표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있다. 그녀 역시 15살이었던 2015년, 보코하람에게 납치돼 강제결혼을 했다. 그녀와 다른 여자아이들은 요리에 쓸 작물을 줍는 틈을 타서 그곳을 탈출했다. 살라마투는 당시 임신 중이었다.

그녀는 자유롭게 됐지만, 여전히 또다른 상처를 받고 있다.

“사람들은 대놓고 저를 '보코하람 아내'라고 부릅니다.” 그녀는 NPR(National Public Radio)과 인터뷰를 하며 “제가 살인범의 아내라고 해요. 또 그들은 제 아들이 '보코하람 아기'라고 말해요.”라고 말했다.

유니세프 보고서는 2016년 2월, 보코하람의 포로들이 고향에 돌아가도 계속해서 오명과 박해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주민들은 피해 여성들과 여자아이들 그리고 그들의 아

이들이 납치범들에 의해 세뇌당해 급진적이거나 위협적인 존재가 되지 않았을까 두려워한다는 것이다. 최근 나이지리아 전역에서 여성 자살폭탄테러가 늘어났다. 이러한 사건으로 지역 주민들은 무장단체에 납치된 여성들과 여자아이들이 그 지역을 불안정하게 한다고 생각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나이지리아 북동부 전역의 난민캠프에는 가족들과 공동체에게 배척당하며 떠날 것을 강요당한 보코하람 포로 여성들과 아이들로 가득 차있다.

## 그들은 내 아기를 '보코'라고 불렀다

에스더는 그녀가 절대 사랑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아이가 이제는 그녀의 기쁨이고 슬픔 속의 웃음이라고 말한다. 한 마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에스더의 삶은 예상치 못한 박해로 암울했다.

“제가 임신했다는 이유로 그들은 나를 조롱했습니다. 나의 조부모들조차 나를 경멸하고 내게 욕을 했습니다. 나는 너무 외로웠고,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내 마음을 더 아프게 한 것은 그들이 내 딸을 레베카로 부르길 거부한 것입니다. 그들은 아이를 보코라고만 불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에스더가 다니는 교회의 리더는 그녀를 외상치료세미나에 참석하도록 초대했다. 그곳에서 훈련 기간 동안 리더들은 에스더와 다른 참가자들이 그들의 모든 고통과 분노를 십자가 아래에 쏟아놓도록 격려했다. 주님은 성폭력 피해자들이 품고 있는 수치와 분노에서 자

유롭게 하실 수 있는 분임을 전하며,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격려했다.

섬김이들은 그들이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수치를 드러내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이해하도록 참가자들이 마음에 품고 있는 짐을 종이에 쓰게 했다. 그리고 그녀에게 그 종이를 나무 십자가에 꽂도록 했다.

에스더는 말했다. “내가 그 종이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나는 나의 모든 슬픔을 하나님께로 넘기는 것 같았습니다. 섬김이들이 십자가에 있던 모든 종이를 태워 재로 만들었을 때 나는 나의 슬픔과 수치가 사라져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에스더는 계속해서 외상 상담을 받았다.

## 슬픔 속의 기쁨과 웃음

그녀가 마을로 돌아온 지 1년이 지난 지금도 사람들은 여전히 에스더와 딸 레베카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끝없는, 그리고 변화시키는 사랑과 자비의 강력한 증거로서 있는 젊은 10대 엄마의 변화에 주목하게 되었다. 에스더는 그녀 자신과 그녀에게 일어난 일에도 불구하고, 평화를 누리고 있었다.

“사람들은 저의 변화에 주목했습니다. 나를 조롱했던 사람들 중 일부가 이전 나의 비밀을 묻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내 원수를 용서했고 이전 하나님이 그의 때에 갚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현재 그녀와 레베카는 에스더의 조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다.

[GNPNEWS]

〈출처: 오픈도어〉

번역= 복음기도신문 국제팀



▶ 외상 치료 세미나에서 납치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부모님들(출처: 오픈도어캡처)

구 교육은 죄'라는 뜻)이 그녀의 마음에 쳐들어왔을 때, 모든 것이 바뀌었다. 첫 번째 총성이 울리고 끔찍한 비명들이 잇따랐을 때 에스더와 그녀의 아버지는 탈출하려 뛰었지만 이미 그들의 집은 포위되어 있었다. 반란군들은 그녀의 아버지를 쓰러뜨리고 바닥에 버려두었다. 순식간에 에스더는 보코하람의 포로가 됐다. 반란군들이 그

로 결정했다. 죽으면 죽으리라. 나는 무슬림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녀의 결심은 용감했지만, 결과는 끔찍했다. 에스더는 지속적으로 강간당했다.

“나를 강간한 남자가 몇 명인지 셀 수도 없습니다. 그들이 공격에서 돌아올 때마다 우리를 강간하려고 했고... 더럽히려 했고...”

그녀는 불에 흐르는 눈물을 숨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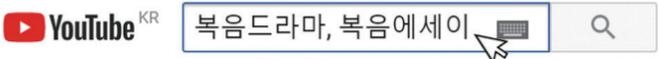
전도를 위한

## 복음드라마, 복음에세이 보급



복음과기도미디어는 믿음의 길을 걸으며 복음을 나누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도구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복음과기도미디어는 믿음의 걸음을 걸으며 복음을 나누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도구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복음과기도미디어는 믿음의 걸음을 걸으며 복음을 나누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도구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복음과기도미디어는 믿음의 걸음을 걸으며 복음을 나누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도구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복음과기도미디어 외에도 복음드라마와 복음에세이 같은 단편 영상물을 제작, 유튜브 등을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많은 활용 바랍니다. [GNPNEWS]



기획 | 조선선교열전 (20) - 제주도 편(2)

# 선교사가 오기도 전에 교회가 세워진 제주

종교개혁 500주년을 넘긴 2018년, 한국의 기독교 역사는 133주년을 맞았다. 구한말부터 본격화된 개신교 선교 역사는 문화, 교육, 의료 분야에서 우리나라 역사와 맥을 같이 하며 한반도의 근대화와 함께 진행됐다. 우리나라 곳곳의 선교역사를 통해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사랑을 되새겨본다. <편집자>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세워 가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고 감탄을 금하지 못했다. 제주 땅에 교회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도 마찬가지이다. 사람으로서는 예상하거나 계산할 수 없는 일들이 씨줄과 날줄처럼 엮여 척박한 땅에서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태동하고 있었다.

천주교와 지역주민의 갈등으로 수백 명이 죽은 이재수의 난이 일어나기 바로 전(前)해인 1900년, 하나님은 제주 출신으로는 첫 번째 기독교인이 된 김재원이라는 한 사람의 삶에 개입하기 시작하셨다. 비교적 넉넉한 집안에서 태어나 학문을 익혔던 김재원은 병명도 알 수 없는 상태로 배가 부풀어 올랐다. 백방으로 손을 써봤으나 원인을 알 수 없어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던 중 경성 '제중원'이라는 신약약방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됐다. 제중원은 미국 알렌 선교사가 만든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병원이다.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찾아가 에비슨 선교사를 만났다.

김재원의 상태는 치료를 거부해야 할 정도로 심각했다. 그러나 간절히 치료를 부탁하는 김재원에게 에비슨 선교사는 "만약 예수를 믿으면 최선을 다해 시술을 해보겠다."라고 약속했고, 몇 차례에 걸친 큰 수술 이후 김재원은 병에서 완치됐다. 경성에서 치료를 받는 동안 그는 에비슨 선교사를 통해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았다.

이재수의 난이 마무리되던 1904년 김재원은 고향인 제주로 돌아와 이호리라는 곳에서 쪽복음으로 전도를 하기 시작했다.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그의 수술 자국을 보여주며 간증했고, 그렇게 김재원의 전도로 믿게 된 사람들이 모여 복음서를 읽으며 함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할지 모르는 김재원은 목회자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에비슨 선교사에게 편지로 사역자를 보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1907년 장대현교회 총회에서 논의가 거쳐 이기풍 선교사를 제주로 파송하게 된 것이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케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케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행 16:9)



▶ 조봉호 선생이 신앙생활을 한 금성교회의 옛 터(오른쪽)와 현재 금성교회(위, 출처: dongilelder.tistory.com/174). 제주노회 창립기념 사진. 앞줄 왼쪽에서 8번째 김재원 장로, 뒷줄 8번째 이기풍 목사(출처: 제주기독교신문 캡처)

제주에는 선교사나 교회개척자가 오기도 전에 이미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져 있었다. 이호리 공동체 외에도 제주 애월읍 금성리에 또 하나의 모임이 있었다. 독립운동가로 알려져 있는 조봉호 선생을 통해 세워진 기도모임으로, 이 모임은 후에 제주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인 금성교회가 된다.

어려서부터 총명했던 조봉호는 서울 경신학교로 유학을 와서 복음을 듣고 평양 숭실대에 재학하

며 장대현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다. 그러던 중 1907년 아버지가 위중하시다는 전갈을 받고 고향인 제주 금성리로 돌아오게 된다. 조봉호는 고향에서도 신앙생활을 계속하며, 그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했고, 그렇게 회심한 사람들과 함께 '양석봉'이라는 성도의 집에서 기도모임을 시작하게 된다. 조봉호는 체계적인 신학 교육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그 심령에 새겨진 생명의 반응으

로 순종하였고, 그 순종으로 놀라운 역사가 시작된 것이다.

행정 기록상으로 제일 처음 세워진 교회는 '성내교회, 성안교회'로 되어있다. 하지만 말씀의 관점으로 본다면 제일 처음 세워진 교회는 바로 이 금성교회라고 할 수 있다. 점점 성도가 늘고 기도처소가 좁아지자 다른 성도들의 집으로 옮겨 다니며 예배를 드리다가 후에는 많은 사람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예배당을 짓게 되었다. 올해로 111주년이 된 금성교회는 여전히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마 16:18)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 아래 그분의 선하신 경영 안에서 세워진다는 것을 제주의 선교 역사를 통해 볼 수 있다. [GNPNEWS]

김성옥 선교사 \*필자는 2011년 교회개척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아 교회 영역을 섬기던 중 말씀의 인도하심으로 2016년 2월 제주로 보내심을 받아 제주의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섬기고 있다.

참고문헌: <한국교회 첫 선교지 살리는 공동체 100년> (김인수 지음, 제주 성안교회, 2010)



## 선교 통신

### "경찰이 들이닥쳐도 이곳은 부흥의 현장입니다"

이곳은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녹음이 질어지듯 이 땅에도 복음의 푸른 계절이 속히 오기를 소망하는 요즘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지체들의 이야기를 전할까 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험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약 1:12)

어느 날 경찰들이 교회에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성도들의 명단을 받아 성도들의 가정을 방문해 "예수를 믿느냐? 교회에 다니느냐? 각서를 쓰라!"고 협박했습니다. 믿음이 약한 분들은 두려워서 각서를 쓰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교회 지도자 사라는 "나는 두렵지 않다. 다만 형제, 자매들이 주님을 부인하고 교회에 가지 않겠다고 각서를 쓴 것이 너무 마

음이 아프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도 딸이 가는 주의 길을 끝까지 따라갈 거라며 사라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이 지역에는 허가받은 교회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특히 사라가 섬기는 교회도 핍박이 잦아 수년 동안 모이면 흩어지고, 모이면 흩어지기를 반복했습니다. 교회 근처에는 경찰이 살고 있습니다. 교회에 문제가 생겨서 어려움을 겪다가 나중에 알고 보면 꼭 경찰이 끼어있는 것입니다. 사라를 어떻게 든 감옥에 넣고 싶어 안달 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는 역사가 그에게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교회 등록 서류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일단 서류가 승인되면 두려워서 떠나간 사람들도 돌아오고 대기 중인 사람들을 포함해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말씀을 공부하

고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릴 뿐입니다. 주님이 길이라 하셨으니 주님이 건너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매사에 믿음을 써야만 가능한 일임을 깨닫게 됩니다. 믿음이 아니면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와중에 선교팀의 방문은 무더위에 만난 소나기와 같았습니다. 선교팀은 초등생부터 중 고생, 장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대로 구성돼,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 복음을 전하며 있는 기간 동안 마음대해 섬겨주셨습니다. 그들의 섬김을 받았던 학교 교직원들은 "크리스천들은 정말 좋은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한 초등학교에 우물을 파준 섬김을 통해 교장 선생님과 학생들이 너무 기뻐하며 교회에 찾아와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진실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며 "꿈속에서 하나님을 보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교회의 안전이 위태로운 상황



본지 자료 사진

기도 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경찰들의 보호 아래 안전하게 사역을 마칠 수 있었던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인구의 95%가 불교도인 이 땅에 핍박 속에서도 전해지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보며 더욱 그리스도의 계절을 이루실 주님을 기대하게 됩니다.

사라는 주변 마을과 관공서에서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죠. 관공서에 일을 보러 가는 날이면 직원들은 사라에게 "당신은 정말 크리스천이군요. 예수 믿으면 좋아요? 당신을 보면 좋은 것 같아요."라고 말을 건네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곳은 부흥의 현장입니다. [GNPNEWS]

L 국 = L 선교사

나눔&나눔 삶의 나눔으로 되새겨 보는 하나님의 은혜

# “사람의 변화는 책이나 훈련이 아니라 오직 복음으로 가능해요”

주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김승년 선교사



올해 나이 63세. 인생의 수많은 일을 겪고, 사람들을 마주했을 텐데도 복음을 나누어 달라는 자리는 늘 쑥스럽지만 감사하다는 김승년 선교사. 어릴 적 미국으로 건너가 명예와 성공만을 목표로 살면서 35년간 의지해온 마약을 끊게한 복음의 능력. 스스로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웅덩이에서 기적같이 건져내주신 유일한 구원자요, 치료자요, 영광이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자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자리라면 어디든 예스(Yes)!로 답하며 순종하기로 했다. 그 순종의 걸음으로 현재 자리한 곳이 한국에서 영어로 복음을 나누는 헤브론선교대학교의 단과대학인 교육선교대학이다. 그는 이곳에서 교육선교사로 섬기고 있다. 지금은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학기 동안 복음을 영어로 가르치는 집중훈련과정에 참여하고 있다. 순종의 걸음 이후, 손자뻘 되는 청소년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비신자뿐 아니라 신자에게도 복음만이 능력임을 확신하게 됐다고 김승년 선교사는 말한다.

- 어떻게 이 같은 순종의 걸음을 걷게 되셨나요?

“저는 원래 마약에 빠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누구보다 그들의 마음을 알기 때문이지요.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마약을 끊기까지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거나 다른 약물로 치료를 받아야요. 그마저도 실패하면 폐인이 되거나 죽는 게 다반사죠. 오직 복음을 통해서 마약에서 해방된 저로서는 정말 그들에게 복음을 자랑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허락하신 자리가 최고의 자리이고, 누구보다 다음세대에게 복음이 필요해서 저를 부르신 거라면 그 자리도 물론 아멘이죠.”

## 복음 만난 이후, 마약중독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 쉽지는 않은 결정이셨겠군요.

“지난해 ‘다시복음앞에’라는 대회가 열려서 한국에 들어왔을 때 한 선교사님을 통해 다음세대를 섬기자는 권유를 받았어요. 당시는 6개월 공동체 훈련인 복음사관학교를 마치고 곧바로 미국으로 돌아간 터라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었어요. 그런데 집에 돌아가자마자 다음세대 신앙훈련과정인 ‘빛의열매학교’



▶ 복음 앞에 선 다음세대와 함께

진행자로 부르심을 받게 됐어요. 요청한 선교사님께 ‘학생들의 나이가 어떻게 되느냐’고 조심스레 물었어요. 듣고 정말 당황했어요. 제가 좀 더 일찍 결혼했으면 있을 수 있는 손자들 나이인 거예요. 아니, 자기 부모들보다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가 학교를 진행하면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기도를 해보겠다고 답을 잠시 미뤘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은 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섬겼죠. 그때부터 주님이 다음세대를 향한 마음을 부어주시기 시작하셨어요.”

그 후 여러 차례 진행자와 강사로 이 과정을 섬겼던 김 선교사는 교회 안에서 자란 다음세대 안에 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게 되었다. 대부분의 다음세대는 믿음 좋은 부모님 아래에서 자라왔음에도 음란 영상물과 마약에 깊이 빠져 있었던 것이다.

“주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이것 봐, 너 지금 다음세대들이 어느 길로 향하고 있는지 보고 있지? 교회 안이 이렇다면, 세상은 어떻겠니?’ 이 아이들을 보고 있으니 정말 내 꼴 나겠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철저히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한 후, 복음으로 새롭게 살고 싶다는 다음세대를 보면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됐어요. 나이가 많은 저 뿐만 아니라 나이가 적은 아이나 남자, 여자, 어느 민족이든지 상관없이 존재적 죄인의 문제는 똑같잖아요. 유혹의 문제, 갖고 싶고, 되고 싶고, 과거와 미래를 두려워하는 것들까지도. 이 모든 종노릇하는 것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신 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저는 확신하게 됐죠. 그래서 지금 이 학교에 섬김으로 부르심을 받았

을 때, 기쁘게 ‘아멘’ 했어요.”

교육 선교사의 자리에서 그는 자신이 복음으로 다음세대를 섬기는 자가 아니라 다음세대와 마찬가지로 복음 앞에 서야 하는 존재임을 깨닫게 됐다. 강의를 준비하고, 들으며 주님 만나기 전과 후의 삶을 돌아보는 은혜의 시간을 갖고 있다. 2004년, 미국에서 총체적 복음을 들을 수 있는 훈련학교가 열렸지만, 세상에서 방황하던 그는 쉽게 응하지 않았다. 그러나 주님은 그의 마음을 바꿔주셨다.

- 그동안의 삶을 소개해주세요.

“제가 3살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어요. 어머니가 그때 당시 굉장히 신여성이었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 삶을 다 정리하고 누님, 저 이렇게 셋이서 미국에 이민을 왔거든요. 그때가 1966년이었는데, 제가 10살쯤 됐던 것 같아요. 당시에는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가 없어서 2개월 반 동안 화물선을 타고 갔죠. 미국으로 곧바로 가는 선편도 없어서 브라질을 거쳐서 갔어요. 저는 삶의 목표가 오로지 세상적인 성공이었어요. 세상에서 좋다고 말하는 모든 번쩍번쩍하는 것을 하면 성공인 줄 알았죠. 14살 때부터 마약을 시작했는데, 마약을 하면 곧바로 돈, 술, 음란이 따라와요. 처음에는 정말 왕이 된 기분이었어요. 걸으려는 잘나가는 사업가, 최고 의리의 사나이, 교회에서는 또 모범적인 집사로 살았죠.

이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삶이 지쳤다고 표현하는 게 맞아요. 정말 목이 마르고 지쳤어요. 새롭게 삶을 시작해보고 싶었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오히려 더 깊은 구덩이 속으로 빠지더군요. 저는 늘 할 수 있는 사람이고, 강한 사람이라

고 생각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구덩이에서 쉽게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세요? 이 손만 조금 더 뻗으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미끄러지고 또 미끄러지는 기분을요. 다시 빠지는 그 깊이는 더욱 깊어만 갔어요. 결코 저는 저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어요. ‘이렇게 피곤하게 살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되는 어느 날은 정말 죽고 싶어서 총을 머리에 겨누기도 했죠. 제가 기도를 안 해봤겠어요? ‘왜 기도를 안 들어주시나? 이러다가 내 삶이 끝나는 거 아니야?’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라 이 상태로 제 삶이 끝나는 게 싫었어요. 잘 모르는 주님인데도 영영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제게 ‘모든 상황을 내가 붙들고 있어, 신뢰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정말 새롭게 제 삶을 시작하고 싶었어요. 그때 미국에서 복음학교 소식을 듣게 됐어요. 처남이 그 훈련과정을 마치고 총체적인 복음 앞에 서면서 제게 이 복음이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를 전해줬어요. 2005년쯤인데, 그다음 주 한국에서 복음학교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급하게 한국행 비행기 표를 끊었죠. 아직도 그때가 선행이죠.”

성경책 한 권, 조그만 가방에 몇 가지 옷 짐만으로 한국을 향한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어린아이 같이 비행기 안에서 불을 꼬집기도 했다. 분명 주님이 특별한 것을 준비하셨을 것 같았다. 그랬다. 정말로 기쁜 소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다.

## 복음이 변화시킨 사람을 보면서 복음 앞에 서다

- 훈련과정을 통해 십자가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되셨나요?

“첫날 월요일 오후부터 마치는 토요일까지 5박 6일간 저는 눈물, 콧물로 시간을 보냈어요. 너무 충격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난 시간들이 떠오르더군요. 오랜 세월 교회를 다녀도 주님을 모를 수 있더군요. 28살, 늦깎이 장가를 간 저는 처음 아내 때문에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첫 자식을 낳았는데, 아들이 거예요. 너무 기뻐서 아내에게 감사헌금을 드리라고 했죠. 두 번째도 아들이었어요. 이번에는 그냥 헌금만 낼 수 없어서 한 번 교회를 나갔는데, 완전

코가 끼였죠. 자연스럽게 집사가 되고, 구역장도 됐어요. 복음에 대해 무지하고 무시하고 무관한 삶을 살았는데도 말이죠. 총체적 복음을 듣고 난 후에 저는 완전히 주님을 믿게 됐어요. 완전히 새사람이 되었죠. 마약을 해야지만 정상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에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어떻게 단번에 마약이 끊어져요. 때로 유혹이 있었지만, 주님이 저를 강력적으로 붙들어 주셨어요.”

그 이후 드리는 모든 예배와 모임은 기뻐다. 그런데도 돈의 욕심, 음란한 생각, 세상과 타협하는 지점, 정죄, 시기, 분노는 여전히 마음에 남아있었다. 주님께 자기 생각, 자기 삶을 온전히 드리지 못한 것은 여전히 포기 못하는 1%가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이었다. ‘나라는 존재를 드러내 주실 때마다 다시 열심히 노력했다. 그러나 어느 한순간만 되면 모래성처럼 무너졌다.

- 믿음의 걸음을 걸으면서 생기는 절망감을 이겨내기가 쉽지 않았죠?

“어느 날은 주님께 묻기도 했어요. ‘주님, 사우나 후, 가벼운 맥주 한 잔 정도는 왜 안돼요? 이전처럼 술 취하거나 즐기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에서 여전히 발을 빠지지 못하는 제 자신을 보고 있자니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림의 떡처럼 누리지 못할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셨을텐데. ‘왜 나는 복음이 실제 되지 못할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12년간 새로운 광야를 걷게 됐어요. 이전에는 이유도 모른 채 혼자 걸어야만 했던 광야라서 너무 버거웠어요. 그런데 이 12년의 광야는 힘겹지만,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이라는 것을 알았죠. 넘어져도 위로하시고 일으켜 주시는 주님을 느꼈어요. 그러면서 ‘도대체 주님은 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살려두셨을까? 내 삶에 어떤 목적인 있으신 걸까?’라는 두 질문을 가지고 6개월간의 공동체 훈련인 복음사관학교에 가야겠다는 마음을 부어주셨어요. 마치 제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인 것 같았어요.”

더는 돌아갈 수 없도록 38년간의 페인트 사업을 정리했다.

내려놓기 너무 아까워서 집에 돌아가면 생각을 반복하곤 했었다.

(6면에 계속)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말씀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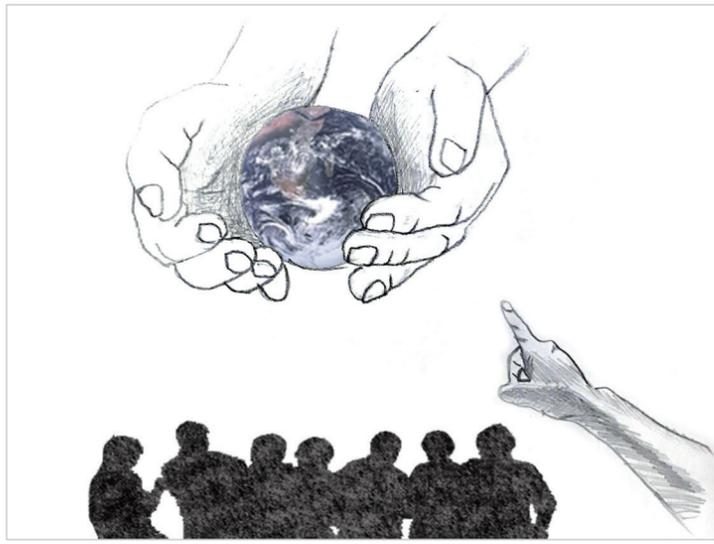
# 위기의 때,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라!

세상을 보고, 세상 가운데 사는 인간들을 보노라면 그 어디에도 소망이 안 보인다. 세상은 악이 행통하고 불의가 판을 치고, 소란하고 뒤죽박죽이다. 또 인간을 들여다보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듯이 '눈에 안 보이니 하나님도 없다.' 말하고, 하늘을 향해 침 뱉는 짓도 거침없이 한다. 근본을 부정하고, 진리를 조롱한다. 이런 일을 서슴지 않는 인간 군상(群像)의 부정과 부패, 조작과 떼거리 행패, 거짓과 음란, 반(反)인륜적 범죄들, 전쟁, 동성애, 교회의 타락 등. 지나온 날들 가운데 이 중의 하나도 우리는 비켜 갈 수 없었다. 이 모든 세상사(世上事)는 지겹도록 보고 들으며 한숨지어야 했던 역사적 실재들이었다.

그런데 세상 가운데 있는 나를 보노라면 더욱 왜소해 보이고, 무기력한 느낌이고, 무거운 짐을 진 듯 지쳐 있다. 거대한 도전 앞에서

서 앞길이 막막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불나방처럼 소란한 세상에 함께 휘말리지 말고, 낮이 빠져서 남의 집 불구경 하듯이 멍하니 할 일도 잇은 채 서 있어서는 안 된다. 적어도 하늘 백성답게, 성도답게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찾아야 한다.

이제 세상과 나에게 머물고 있는 시선을 돌려, 눈을 들어 하늘을 봐야 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시 121:1) 기가 막힌 위기와 어려운 상황 앞에 놓였던 시편 기자가 사건에 침몰되지 아니하고, 상황에 떠밀리지 아니하고 자신의 영혼을 일깨우며 하는 말이다. 그가 외친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 121:2)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일들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고 외치는 믿음의 선언이다.



일러스트=노주나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사 40:26a) 사건 속에 휘말려 있으면 상황을 분석할 수 있는 여유와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없다. 그래서 '눈을 높이 들라'고 말씀하신다. 앞뒤

분별이 안 되고, 기막힌 절망 앞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 상황 분석을 요구하지 않고, 오히려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는지 보라'고 말씀하신다. "주께서는 수효대로 만상을 이끌

어 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하므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사 40:26b) 하나님 눈앞에 가리어진 사건은 하나도 없다. "아굽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사 40:27) 제아무리 작은 자의 형편이라 할지라도 살아계신 주님은 기억하시고 간섭하시고 도우신다.

우리는 지극히 제한적이고 부분적인 것만을 안다. 따라서 바로 알려진 '눈을 높이 들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이다 (2016년 12월 메시지 정리). <계속>

[GNPNEWS]

김용의 선교사  
(순회선교사, LOG미션 대표)

복음과 기도미디어  
Gospel & Prayer Media

## 복음의 삶을 위한 소식지 시리즈 2

### Life in the Gospel

“착하게 살면 되지, 꼭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 받을 수 있는가?”

“착하게 살면 되지, 꼭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 받을 수 있는가?”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말이여!”

로마서 10:15

이 전도지는 누구든지 읽고, 하나님에 대하여 마음을 열수 있는 짧은 글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손쉽게 들고 다니며 복음을 나눌 수 있습니다.

전도지 규격 : 182X157mm(B5사이즈)  
가격 : 100매(10,000원) 이상 주문 가능

---

## 복음과 기도미디어 “오직 믿음” 시리즈

### 2017순회복음집회 오디오 CD

영원한 운명을 바꾸게 되는 믿음!  
종교개혁의 핵심이며  
복음의 본질의 핵심이 되는  
오직 믿음.  
두려운 경고이자  
눈물겨운 감격스런 초대이 여기 있다.  
완전한 복음,  
하나님의 은혜를 오직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자.

로마서 1:16-17

오디오CD - A/B

Track1 (00:00-22:56)  
Track2 (22:56-43:34)

김용의 선교사  
GNM-032CA

오디오 CD(2장 한세트) 6,000원  
약 20분씩 4개의 트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입문의 야긴과 보이스 032-887-0235 www.jakinnboaz.co.kr

Interview <5면에 이어>

## 주님이 부르셨으니까 왔습니다

그는 '돈인가, 하나님인가?'라는 질문으로 1년간 씨름을 하다 마침내 2016년 8월, 그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왔다.

**38년간의 사업을 정리하고 믿음의 길을 걷다**

- 그런 결정을 반대하는 분들은 없으셨나요?

“가족 중 그 누구도 저의 선택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제가 어떤 씨름을 했는지, 하나님을 향한 어떤 갈망이 있는 지 알았거든요. 오히려 저의 순종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줬죠.

복음사관학교 면담이 있는 약속 날인 오전 10시에 한국에 도착하기 위해 전날 밤 10시, 미국에서 은퇴식을 마친 후 곧바로 비행기를 타고 날아왔어요. 강원도 안홍훈련소에 도착했는데 30~40년 된 낡은 건물을 보자마자 든 첫 생각은 '와우, 나 정말 죽었구나.'였어요. 강의실에서 잠깐 기다리면서 '그리스도만 남는 학교'라는 큰 현수막을

보면서 '맞아, 내가 이 삶을 사모해서 여기까지 왔지.'라고 생각했죠. 한 선교사님이 제게 “미국에도 이 훈련이 있는데, 왜 한국까지 왔나요?”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저는 “주님이 부르셨으니까 왔습니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었어요. 미국은 제게 너무 익숙한 곳이라서 사실 의미가 없었거든요. 면담을 마친 후에 숙소로 돌아왔을 때, '합격이 안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조금 있긴 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힘겹게 살아온 60년간의 모든 생활, 분주한 생각들을 내려놓고 주님께 초점을 맞추게 하신 후, 제게 일해 주시게 시작하셨어요.”

S.Y.

<스마트폰에서 QR코드를 스캔하시거나, 인터넷 복음기도신문(www.gnpnews.org)에서 다음 이야기를 보실 수 있습니다.>

▶ 교육선교대학 교육선교사들과 함께



# “하나님은 불신자였던 나를 만나 주셨다”

아웃리치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각하는 선교에 대한 큰 틀을 깨주셨다. 쉽게 순종할 만한 상황과 환경을 가진 사람은 누구도 없었음을 보게 되었다. 한 걸음도 떼기 어려운 순간에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걸었던 믿음의 증인들을 선교 현장에서 보았다.

나는 좀 더 나이스하게 선교를 하고 싶었다. 내가 잘 하는 것들로, 우여 곡절 없이 모든 것들이 순탄하게 흘러가는 선교 말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약한데서 온전하여 진다는 말씀과 약한 것을 자랑 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능욕, 박해, 곤고를 기뻐한다(고후 12:9~10)던 바울의 고백을 약속의 말씀으로 주셨다. 나의 약함 때문에 겪을 어려움과 시행착오들을 두려워하고 있던 마음을 아신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었다.

아프리카의 가나로 가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될 것이 생각보다 많았다. 비자발급을 위한 재정, 황열병 주사, 긴 휴가가 허락되지 않는 직장의 상황 등을 통해 나로서는



일러스트=김효정

무엇 하나도 할 수 없음을 분명히 드러내셨다.

### 잘하는 선교 아닌 주님만을 붙드는 선교

훈련학교도 가지 않은 채, 집에서 혼자만의 생각에 사로잡혀 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였다. 우연히 듣게 된 설교에서 “광야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냐?” 라는 질문이 들렸다. 한 대 얻어맞

은 기분이었다. 어려웠던 심경을 팀장님께 나누고 아웃리치를 가기로 결정했다.

어렸을 적, 나는 교회 다니는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 자신을 믿어라.”라고 말할 만큼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이런 나를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만나 주셨고, 주님을 따르게 하셨다. 분명한 선교사로의 부르심이 있음에도 대학 졸업 후,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하

“  
화려하지 않아도  
순종의 자리에 있기만 해도,  
눈에 보이는  
대단한 결과가 아니어도  
부르신 곳에서  
다시 오실 예수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전하는 것이면  
충분하다  
”

며 순종을 계속 유보했다.

그렇게 도착한 가나에서도 아직 나를 드리게 주저하는 모습에 대해 주님은 예배 시간에 계속 말씀하셨다.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을 다 쳐서 멸하지 않고 남겨놓은 이스라엘의 모습이 ‘나’라고 하셨다. 주님은 내 마음 전부를 요구하셨다.

좋지 못한 물 사정, 더운 날씨, 말라리아의 위험, 예기치 못한 자동차 고장, 가끔씩 정전되는 상황.

“이런 환경 속에서도 너 나를 따를 수 있겠니?”라고 하나님은 물으셨다. 나의 대답은 주저 않고 “아멘”이었다. 화려하지 않아도, 순종의 자리에 있기만 해도 된다는 마음으로 나를 압도하셨다. 눈에 보이는 대단한 결과가 아니어도 부르신 곳에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전하는 것이면 충분하다.

아웃리치는 끝났지만 앞으로의 삶의 아웃리치도 주님이 하실 것이다. 때론 주저하는 나의 모습에 부끄럽기도 하겠지만, 선교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선교하셨던 것처럼 변함없이 열방 곳곳에서 선교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를 드리겠다. 주님이 하셨다! [GNPNEWS]

하규현 형제(평리교회)

### \* 믿음의 글을 받습니다.

독자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믿음의 삶을 나눠주세요. 믿음의 증인을 추천해 주셔도 좋습니다. gnpnews@gnmedia.org ☎ 070-7417-0408



## 목숨을 건 순종으로 북한 지하교회가 세워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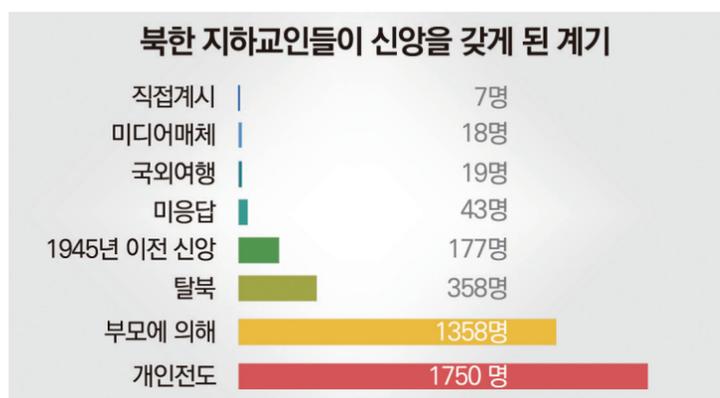
이 코너는 한반도의 부흥을 소망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슈나 사건,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다. <편집자>

2010년 이후에 탈북한 한 자매가 선교사를 찾았다. 성경공부를 하며 성령체험을 하고, 말씀에 사로잡혀 북한에 돌아간 이 자매는 북한성도들의 소개로 만났다. 다음은 어려운 중에서도 북한의 지하교회가 건재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고백이다.

“조선에 친한 언니들 다섯이 있습니다. 하루는 그 언니들 중에 먼저 알게 된 OO 언니를 찾아가니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서 앉으라고 했습니다. 그중에 만언니가 제게 중국에 언제 가냐고 물었습니다. OO에 간다고 하니, ‘중국에는 대놓고 하나님 믿으라고 한데는 맞나?’라고 물었습니다.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라고 하니까 제게 ‘말해도 일 없어, 우리 다 형제같이 생각하면 돼.’라고 말하며, ‘중국에 하나님 가르치는 목사도 있나?’고 물었습니다. 제가 ‘목사라는 소리는 처음 듣는다.’라고 대답하니 ‘아니 있다니까 이번에 가서 한번 알아봐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조선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이 있다는 말을 들었어도 직접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언니들이 하나님을 믿으며 산다는 것을 제 눈으로 보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을 믿고 살아야겠다고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선교사님을 만나 말씀을 배우고 조선으로 돌아갈 때 목숨을 내걸고 성경공부 자료를 2개 가져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지고 가지니 마음이 떨렸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면 사는 것이고 아니면 죽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세관검열을 앞두고 마음속으로 ‘하나님, 나의 목숨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무사히 통과되었고, 그걸 가져가 하나는 제가 보관하고 다른 하나는 믿고 따르는 OO 언니에게 주었습니다.

언니들 조직 다섯 명 중 3명은 부모들이 믿음으로 살다가 자식들에게 전하여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만언니는 어머니로부터 복음을 듣고 배웠으며, 나머지 2명은 만언니가 전도해 모임이 되었습니다. 언니들 조직에 성경이 두 권 뿐이어서 하나는 OO 언니가 보고, 나머지 한 권은 서로 돌려보고 있



▶ 북한 지하교인들이 신앙을 갖게 된 계기(출처: 북한 지하교회의 존재에 대한 선교학적 이해, 이반석), 집에서 북한 기독교인들이 예배하는 모습(출처: charismanews.com 캡처)

다고 했습니다. OO 언니도 5년 전에 만언니가 전도했다고 합니다. OO 언니는 일상생활 가운데서 어떤 문제가 생기든지 다 기도를 하면 모든 일이 해결된다고 제게도 말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OO 언니가 제게 ‘항상 너는 조심하라.’

고 말해줍니다. 하나님을 믿는 일이 항상 위험하고 힘들지만 주변에 믿는 사람들이 함께 하는 것이 큰 위리가 되고 힘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항상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GNPNEWS] <출처: 모퉁이돌선교회>



## “숨길 수 없다”

한 그리스도인 형제가 고백했다. “나는 믿음으로 내 삶을 하나님께 바쳤다. 그 이후,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 성령으로 충만으로 내가 변화됐다. 하지만 나는 그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다.”

며칠이 지났다. 그의 아내가 형제의 팔을 잡으며 “여보, 무슨 일 있어요?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게 분명해요.”라고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달라고 했다. 그러자 형제에게서 성령님의 기쁨부음을 받은 간증이 봇물이 터지듯 흘러나왔다. 성령 충만으로 완전히 새로워진 삶의 고백은 끊이지 않았다. 거룩한 삶의 영적 열매와 아름다운 드러날 수밖에 없다. 성령의 기쁨부음을 받은 사람에게 기쁨은 강물같이 흘러나온다. [GNPNE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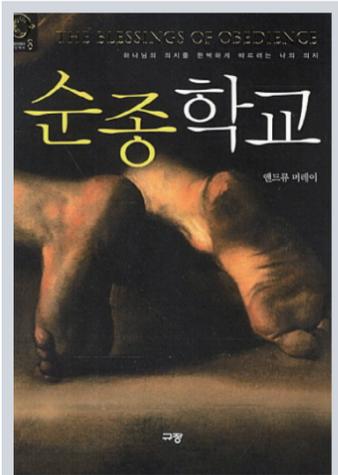


<철저한 심사가(2011), A.W.토저, 규장각>

뷰즈인 북스  
Views in Books

앤드류 머레이 <순종학교>

# 순종을 결단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잃어버리는 기술



앤드류 머레이 | 배웅준 옮김 | 규장 | 164p | 2013

‘순종’ 참 많이 듣고 또 참 많이 고백하게 되는 단어다. 그런데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순종은 무엇일까? 나는 순종의 삶을 살고 있는가? 주님은 나의 순종을 통해 무엇을 하시길 원하실까? 순종학교에 입학하는 마음으로 책을 읽게 되었다.

책의 서두에서 저자는 ‘순종은 하

나님이 요구하시는 절대적인 것이며 인간의 삶에 필요한 단 한 가지’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순종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기 위한 유일한 길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의 아담에서부터 한결같이 순종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 이렇듯 순종은 성경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서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나의 삶에도 순종이 그렇게 높은 자리에 있는가? 구약의 사울 왕처럼 내 생각대로 행하고 있으면서도 순종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돌아보게 되었다. 내가 할 수 있거나 혹은 순종해야 할 일이 내 마음에 만족과 기쁨이 되는 것이라면 ‘순종’이 어렵지 않게 여겨지는 반면 내가 할 수 없거나 생각조차 해보지 않았거나 전혀 내 마

음으로 하고 싶지 않은 것이면 ‘순종’이 얼마나 어렵게만 느껴지는지... 결국 하나님의 뜻과 분명한 말씀 앞에서 보니 여전히 순종의 기준이 내가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순종은 내가 기준이 되어 할 수 있음과 없음을 나눌 수 있는 개념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의 근거가 되며 말씀을 받는 나는 절대적으로 순종을 드러야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순종은 어떤 행위로 순종을 보이려는 것보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는 마음의 문제였다.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고자 하는 갈망이 있는가? 그런 갈망으로 날마다 말씀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결국 이런 본질적인 질문 앞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책을 읽을수록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었다.

‘주님! 정말 주님이 받으셔야 하는 완전한 순종을 드리는 자로 서고 싶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며 책을 읽는데 답은 간단했다. 순종은 처음부터 죄인 된 본성을 가진 나로는 불가능하며 오직 그리스도로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책에서 말하는 순종학교의 유일한 교사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순종을 배워 친히 순종을 가르치시는 분. 완전한 순종을 보이신 십자가로 말미암아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를 순종의 존재로, 새 피조물 되게 하신 분. 그분으로만 완전한 순종을 어느 때나, 언제나, 드릴 수 있는 것이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인해 완전한 순종을 드리는 자가 되게 하셨다. 그분을 의지하여 말씀을 읽고, 알게 하신 만큼 순간순간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갈 때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친히 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다.

### 완전한 순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 순종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무엇을 순종해야 하는가? 날마다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 순종하면 된다. 왜 순종하는가? 하나님의 자녀 된 생명으로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완전한 순종이 가능한가? 완전한 순종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에 완전한 순종이 가능하다.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끊임 없이 그 일을 도우신다. 왜? 우리의 순종으로 온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우리에게도 그 순종의 축복을 주시길 원하시기 때문이다. 저자는 순종에 따르는 대가(代價), “잃어버리는 기술”이 필요하다고 당부한다. 그것은 바로 자아를 부인하는 것. 우리 의지와 삶을 죽음에 내어 주는 것.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행할 각오를 하는 것! 순종을 결단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잃어버리는 기술이다.

주님이 받으셔야 하는 성도와 교회의 온전한 순종을 통해 온 세상이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GNPNEWS]

강영숙 선교사



## 일상에서 만난 하나님

# “혼계를 멈추고 위해 기도했다. 어느 날 딸의 변화가 시작됐다”

벌써 결혼한 지 9년 차, 3남 1녀를 둔 엄마입니다. 주님은 아이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통해 저를 진리로 인도해오셨습니다.

첫 아이를 임신했을 때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떠났던 아웃리치 현장에서 아이의 생명을 주님께 맡겨야 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나섰지만, 장시간의 비행과 사막의 기후로 몸이 극도로 피곤해져서 하열을 시작했습니다. 놀랐지만 더욱 주님을 찾았습니다. 오직 주님만 믿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주님이 아이를 붙들어주셔서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어느덧 초등학교 1학년이 되었습니다.

‘까칠한’ 우리 딸은 머리 묶는 것, 옷 입는 것, 많은 것들을 엄마가 해주는 대로 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의 방법을 고집합니다. 동생들에게도 자기 뜻대로만 하려고 해서 싸움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처음 학교에 입학했을 때 친구들과 관계가 어렵고 적응을 잘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하던 아이가 학교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으니 학교 가는 것을 싫어하고 어려워했습니다. 친구들에게도 말과 행동으로 어렵게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속상해서 아이를 혼계하기만 했습니다. “넌 왜 이렇게 적응을 못 하니? 다른 아이들은 다 잘하잖아! 너는 이 정도도 못해?” 왜 이런 아이를 주셨을까 하는 원망의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아이가 원망스럽고 혼계하는 것도 지쳤습니다.



‘부모님은 나를 어떻게 순종하도록 하셨을까? 하나님은 어떻게 내가 순종하도록 하셨을까?’ 하나님이 위대하게 생각했고, 부모님도 놀라웠습니다. 아이를 원망했지만 실은 나도 똑같았습니다. 나의 순종은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두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께 매달리고 주님을 간절히 찾아

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런 마음을 친정어머니와 나누었더니 맞다고 하시며 주님만이 답이라면서 함께 기도하자고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혼계를 멈추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설거지를 하며, 청소를 하며 어느 시간이든 아이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을 간절히 구했습니다. “주님, 지식이 많

의 말을 듣고 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진리를 설명해주고 하나님편을 선택하는 것을 이야기해주면 알았다고 하고 순종합니다. 아이의 돌이키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했습니다. 아이가 엄마 말씀에 따르지 않고 돌발적인 행동을 하는 자신을 발견할 때면 이렇게 물어옵니다. “엄마, 엄마 말을 안 듣게 하는 건 사탄이 주는 마음이지요? 사탄을 물리치고, 잘 안될 때는 기도하면 주님이 승리하게 해주시죠?” 그러고는 함께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며 주님의 마음을 구합니다. 세밀하게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만약 우리 아이가 순종적이고, 별문제 없는 아이였다면 당연한 줄 알고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이를 보며 내게 소망이 없음과 주님밖에는 답이 없음과 주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게 되니 우리 딸이 내게는 ‘안전장치’임을 깨달았습니다. ‘까칠한’ 딸이지만 주님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으시는 다음세대 선교사가 되는 소망을 주십니다. 오직 주님 편에 선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실 것을 기대하고 오늘도 딸과 함께 주님께 나아가 갑니다. [GNPNEWS]

김주실 사모(십자가사랑교회)

### 구독신청 안내

구독부수는 최소 1명 이상에게 복음을 나누며 전하도록 2부, 20부, 100부 이상 신청받고 있습니다. 구독료는 받지 않습니다.

### 후원 안내

복음기도신문은 동역자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제작·배포되고 있습니다. 동역하실 분들은 아래 후원계좌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국민은행: 651001-01-343666 예금주: 복음과기도미디어

### 후원자 명단

2018. 4. 5 ~ 4. 19 (가나다 순)  
개인  
강은진 김사회 김선희 김수미 김영세 김유남 김정화 권혜령 노은옥 박성규 안광인 안병윤 오대현 유자인 윤경석 이정희 이준진 이진희 임종태 장선주 정해정 조상국 차인순 최정숙 황하임 무명  
교회 및 단체  
겨자씨선교회 마하나임성대교회 반석중앙교회 복음기도신학연구소 부천좋은교회 선한목자교회 순회선교단미주지부 웹 양평예향교회 은혜선일교회 전주온누리교회 주만교회 죽전교회 트리니티 헬시바교회  
“동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기사 제보·구독·헌금·동역 문의는 아래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 070-7417-0408~10  
E-mail: gnpnews@gnmedia.org (31952) 충남 서산시 운산면 원평3길 8  
페이스북 www.facebook.com/gospelprayernews

발행인 겸 편집인: 김강호, 인쇄인: 이병동 (주)아이피디. 2010년 12월 1일 등록번호 충남, 다01355.(격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